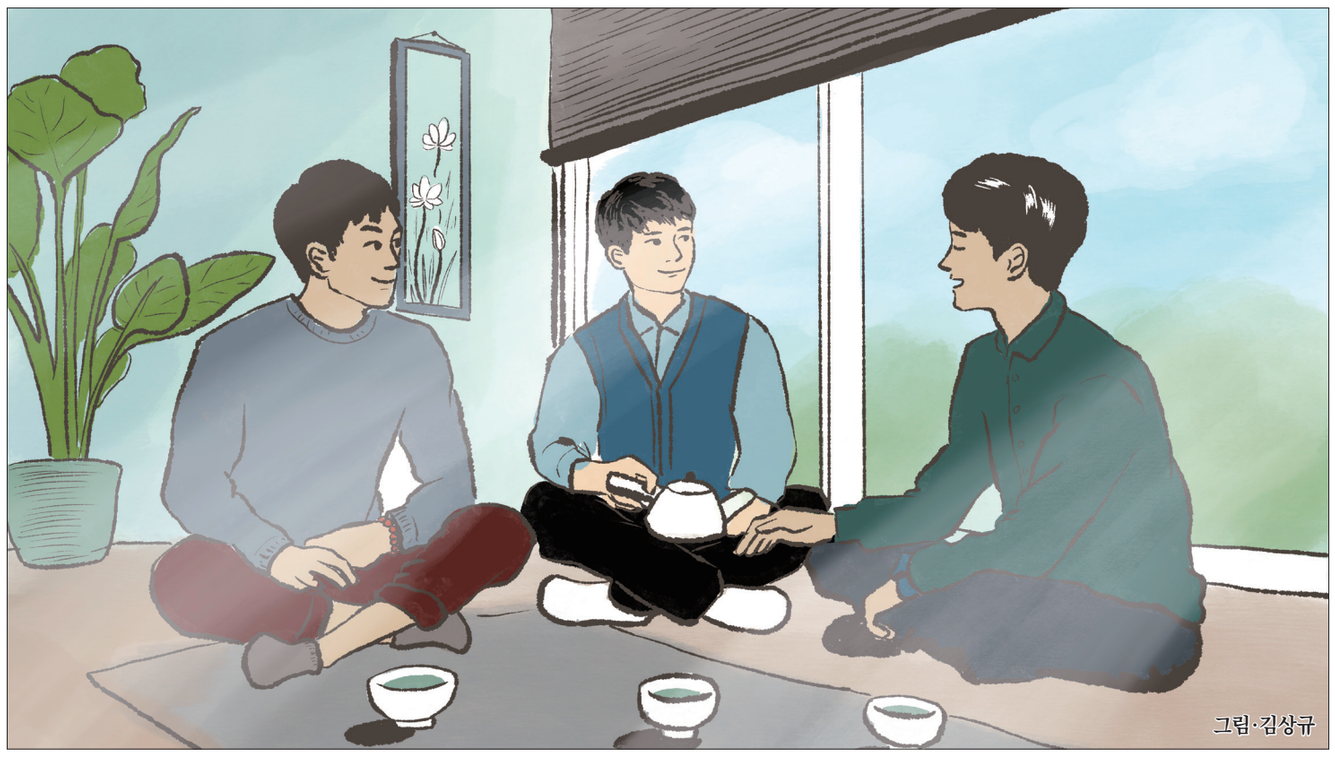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도 가치

조계종
화쟁위원회

2023 갈등해결 성공사례 수기

③미래본부 사무총장상 박○○ 씨

동아리 단체티 제작으로 갈등
같이 차 마시며 대화로 풀어
의견 존중하는 문화도 형성돼


그림·김상규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 불교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입니다. 동아리 회장으로 동아리를 꾸려가며 생겼던 갈등을 불교의 관점으로 해결하고 조율해 나갔던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동아리 화합을 위해 행사를 진행할 때 입을 옷을 구매하고자 하려하는데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아리 단체티를 사려고 하는데 두 친구가 다른 의견을 가져 첨예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여름에 잘 입을 수 있게 통기성이 뛰어난 기능성 티를 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친구는 사계절 안에 잘 받쳐 입기 좋은 면티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두 친구의 주장 모두 타당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티 주문 절차상 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라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논의가 계속될수록 서로의 의견을 폄하하고 날이 선 말이 주고 가며 갈등이 더 깊어져 논점을 벗어나는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두 친구를 따로 만나서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흥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법우님은 머뭇거리더니 사실 이 논쟁이 생기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에 같이 토론법등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꾸 자기를 무시하거나 은근히 깔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긴 머쓱하고 괜히 기분이 상해서 혼자서만 생각하다보니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구나' 하고서 단정지은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들어보니 상대에게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서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내린 듯 했습니다.

화쟁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표현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건 분명 오해일 것이니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어보자고 제안했고 자신도 그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법우님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도록 극단적인 입장보다는 중도 즉 중간의 길을 찾도록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모일 수 있는 동아리 방에서 따뜻한 차 한 잔씩 앞에 두고서 다도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두 법우님의 의견을 듣고 중재하며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고 저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연기의 법칙을 적용하여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고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연기의 법칙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 법우들은 갈등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해보자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렇게 임원진들과 두 법우님 그리고 다른 법우님들과도 모여서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며 두 선택지의 장점과 단점, 가격 재질의 특성 등 다각도로 바라보며 다른 의견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원활하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빔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띄웠고 워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가며 이야기 나누었고 정말 오랜 시간 토의 후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통기성이 좋은 반팔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고 다른 옷이랑 입기에 좋은 면티는 이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후드티나 후드집업을 면 재질로 결정해서 다른 옷과 입을 수 있게 하자고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옳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격하면 외눈박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옳듯 상대도 옳을 수 있다는 이치를 안다면 평화로운 길이 열립니다. 논쟁의 장이 싸움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양쪽 모두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상당부분은 자세만 바뀌어도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쟁은 너와 내가 함께 이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갈등의 당사자를 갈등의 해결자로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두 법우들 모두 마음 상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는 우리 동아리의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불교의 화쟁사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이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재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동아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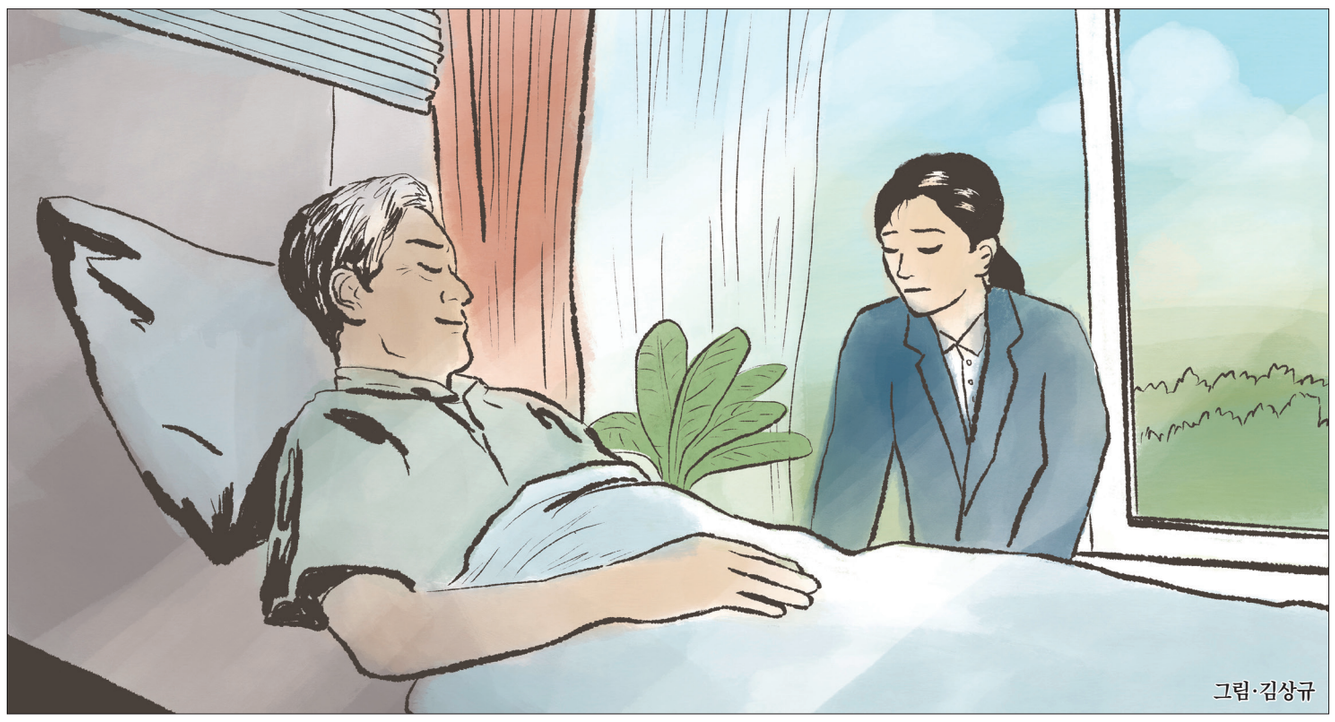
화쟁이 내게 안겨준 평화

조계종
화쟁위원회

2023 갈등해결 성공사례 수기

④화쟁위원회 부위원장상 서○○ 씨

노름빚 지고 집 떠난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찾아와 참회
화쟁 새기며 증오심 풀어내


그림·김상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날,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집을 나간 뒤 몇 년 만에 찾아온 아버지를 본 순간 언니는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다가 떠났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언니는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악을 썼다. 허망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과 원망이 모두 아버지에게로 쏟아졌다. 나 역시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가 조금도 달갑지 않았다.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져 지냈다. 노름으로 돈을 잃은 날이면 어김없이 술에 잔뜩 취해서 어머니와 우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 후 큰 노름빚을 지고는 빚쟁이들을 피해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다.

어머니의 어깨 위에는 우리 삼남매의 생계가 무겁게 얹어졌다. 평생 농사만 짓던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채소도 팔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듯 지난한 날들을 억척스럽게 버텨내던 어머니는 결국 병을 얻어 몸져눕게 되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탓이었다.

어머니는 가슴 속에 꽁꽁 싸매어놓았던, 탁하고 응어리진 감정들을 끝내 풀어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돌아오면 내치지 말고 잘 보살펴주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차마 그러겠노라고 답하지 못했다.

영정 앞에 선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버지를 내치지 말라던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라, 빈소 한편에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후에도 아버지는 좀처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우리를 앉혀 놓고는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를 볼 낯이 없다. 비록 너희 엄마는 고생만 하다가 떠나보냈지만, 너희들한테라도 빚을 갚을 기회를 다오"라고 말했다. 언니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제 돈도 떨어지고 갈 데도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사는 우리가 불쌍해 보여요? 여기에 아버지 자리는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집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와는 달리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공사현장에 나가 돈을 벌어 고스란히 생활비로 내놓았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는 가시 돋친 말로 아버지를 공격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다가와도 절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과거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갔을 때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일이 생각났다. 당시 아버지를 원망하던 어머니와 나에게 스님은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하면 관계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병이 들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바꿔야 할 것들을 찾아 바꾸면 마음속의 고통과 원망이 사라질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거두셨다.

당시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 불심이 깊은 지인에게 의미를 물어보았다. 지인은 스님의 말씀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화쟁이라고 알려주었다. 다툼을 화해시키고 조화롭게 문제를 다룬다는 뜻을 가진 화쟁은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생각도 수용하자는 게 핵심이념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래, 어머니는 스님의 얘기를 듣고 이미 자신을 들여다본 후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를 인정하셨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나도 아버지를 너무 배타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우선 대화를 나눠보자는 쪽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생각의 변화는 아버지를 향해 쏟아내던 뾰족한 말들을 거둬들이게 만들었고, 아버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봐왔던 시선도 조금씩 희석시켜 주었다. 언니에게도 엄마와 내가 느낀 화쟁의 생각들을 전하고, 이젠 아버지에 대한 갈등과 미움을 풀자고 설득했다.

그즈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어깨와 다리를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한동안은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큰 부상이었다. 통증이 심한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모습이 짠했다. 그런 아버지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나는 언니와 함께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간병했다.

병원에서 함께 지내며 우리 자매는 아버지와 조금씩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서로 말을 섞으면 공격과 변명이 오갈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평화로운 소통과 다툼의 시간을 보냈다. 나와 언니는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아버지의 얘기들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아버지는 긴 이야기 끝에 나와 언니에게 진심을 담아 지난 일들을 사과하셨다.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당신의 모습을 후회했고, 노름에 빠져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과거를 반성하셨다.

평소 같았으면 사과한다는 말조차 꺼내지 말라고 화부터 냈을 나와 언니였는데, 화쟁을 가슴에 새긴 덕분에 아버지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을 하셨다. 4주라는 시간 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거두고 나자, 모든 게 아버지 탓이라는 생각 또한 사라졌다. 우리는 화쟁을 통해 아버지를 향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를 형성해 나갈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한 다음날 곧바로 일을 나가려는 아버지를 언니가 말려 세웠다.

"저도 이제는 일을 다니니까, 이렇게 아플 땐 좀 쉬세요. 아버지가 아프면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언니의 말투와 표정은 무미건조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이 가득 배어 있었다.

"못난 애비 걱정해줘서 고맙다. 몸도 더 챙기고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일 하마~."

한때는 지독히도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였다. 화쟁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거두고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도와주었다. 지옥 같았던 마음에 불현듯 찾아온 이 평화는 화쟁이 내게 안겨준 선물이다.